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31.

발 의 자 : 전재수 · 이재관 · 이학영
이성윤 · 김재원 · 임오경
김정호 · 박정하 · 민형배
허영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,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.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

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,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,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험대리상은”을 “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험대리상의”를 “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험대리상이”를 “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”로 한다.

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重要な事項”을 “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제651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46조의2 및 제6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

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46조의2(보험대리상 등의 권한) ① <u>보험대리상은</u>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.	제646조의2(보험대리상 등의 권한) ① <u>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</u>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<u>보험대리상의</u>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	② ----- --- <u>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</u> ----- -----.
③ <u>보험대리상이</u>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(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.	③ <u>보험대리상 및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第651條(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契約解止)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	第651條(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契約解止) ① ----- ----- -----

重要な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は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内に,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内に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. 그러나 保險者が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第651條의2(書面に 의한 質問의 效力) 保險者が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.

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

-----.

-----.

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<삭 제>